

재난 이후의 문학적 상상력과 길항(拮抗)하는 디스토피아

-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헌등사(獻燈使)」를 중심으로 -

최가형*
cj0917@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과 미래 |
| 2. 디스토피아의 도래 | 5. 나오며 |
| 3. 길항하는 디스토피아 | |

主題語: 다와다 요코(Tawada Yoko), 헌등사(Kentoshi), 디스토피아(Dystopia), 원전사고(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3.11동일본대지진(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1. 들어가며

일본어와 독일어, 두 가지 언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이중(二重)언어 작가, 19세 무렵 일본을 떠난 이래 주로 독일에 거주하며 일본 외부에 머물고 있는 디아스포라 작가.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이하 다와다)는 이와 같은 수식어들을 동반하는 작가로서 다와다의 독특한 이력과 혼치 않은 창작 방식은 그의 작품을 논할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곤 한다. 이와 더불어 다와다의 작품은 작가의 이력을 배경 삼아 주로 경계, 언어, 정체성, 디아스포라 등의 테마와 결부해 논의되어 왔다.

그런 다와다의 작품 세계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하 3.11), 연이어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이하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전환을 맞게 된다. 다와다 요코는 원전사고 발생 후의 작품 활동에 대해 “3.11 이후 원전에 관한 테마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²⁾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연구중심교수

1) 3.11과 원전사고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3.11을 그 자체로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세 재난 모두를 일컫는 트리플 재난으로서 명명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다와다 요코가 말한 3.11은 트리플 재난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3.11이다.

2014년 발간된 『헌등사(献灯士)』³⁾는 다와다의 단편집으로, 실려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은 원전사고 이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표제작 「헌등사」는 원전사고 이후 완전한 쇠국 상태가 되어버린 일본, 신체적으로 병약하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며 영생에 가까운 수명과 건강 상태를 유지해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⁴⁾는 「헌등사」에서 3.11이나 원전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 것, 작중에서 등장인물들이 언어 사용 시 ‘민영화된 정부’로 일컬어지는 특정 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소설적 표현들이 지난 2013년 12월 일본에서 공포된 특정비밀보호법⁵⁾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들 가운데 작품과 현재의 일본사회를 가장 밀착시켜 해석한 사례라 할 수 있으나, 「헌등사」의 특정 설정에 한정된 해석만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다니구치 사치요⁶⁾는 다와다 문학 세계에서 ‘경계’가 갖는 의미에 관해 고찰하며 부분적으로 「헌등사」를 언급한 바 있으나, 논의의 주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니구치 사치요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것으로 최가형⁷⁾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최가형 역시 경계의 문제를 주된 테마로 하여 단편집 『헌등사』에 실린 「불사의 섬(不死の島)」 「피안(彼岸)」 등의 작품들에서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경계, 피해와 가해의 경계 등에 관해 고찰했다. 그러나 이 역시 「헌등사」에 관한 언급이 있을 뿐 「헌등사」를 작품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기에 그 분석과 내용에 한계가 있다.

그런가하면 남상욱은 「헌등사」가 재난문학으로 분류되어 3.11, 원전사고 등과의 연관성 아래에서만 해석되는 경향을 경계하며 ‘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라는 주제로 「헌등사」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남상욱의 지적대로 다와다의 작품을 재난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한정적으로

2) <http://www.theaterx.jp/library/jouen.php> (검색일: 2019년 12월 29일)

3)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4) 木村朗子(2019.3)「放射能災の想像力: 多和田葉子『献灯使』のかたること」『2018年度フェリス女学院大学学内共同研究: ポピュリズムとアート』フェリス女学院大学

5) 특정비밀보호법(特定秘密保護法). 2013년 12월 성립.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기관의 수장은 ① 방위(防衛), 외교, 특정유해활동 방지, 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정보로서 ② 공표되지 아니한 것들 중 ③ 그 누설로 인해 국가의 안전 보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특별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특정비밀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의 ‘특정비밀’의 정의(定義)란 무엇이며, 정보 접근에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과 더불어 이러한 법안 성립이 방산능유출사고 관련 정보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었다.

6) 谷口幸代(2015.3)「多和田葉子の文学における境界: 「夕陽の昇るとき~STILL FUKUSHIMA~」を中心に」『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11巻, お茶の水女子大学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研究所

7) 최가형(2018.11)「재해와 경계너머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작품세계」『일본어문학』83집, 일본어문학회

다루는 것은 자칫 다양한 작품 해석의 여지를 닫아버리는 일일 수 있다. 또한 작중 어디에도 3.11이라든가 원전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와다 자신이 밝혔던 것처럼 “이야기의 출발점은 명백히 3.11과 원전사고”⁸⁾라 볼 수 있으며, 그 어떤 해석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행해질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헌등사」에 관한 고찰은 결국 원전사고 이후의 일본사회라는 콘텍스트적인 맥락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3.11과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보다도 쓰나미 피해를 그린 작품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⁹⁾는 점은 다와다 정도의 작가가 정치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원전사고 발생 이후의 일본사회를 묘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의 파급성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그것이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미래사회를 그리는 것은 현대사회를 미래에 투영시켜보는 독해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다와다가 다름 아닌 디스토피아를 묘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그가 현대 일본사회의 경향 및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원전사고 이후 「헌등사」라는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다와다의 문학적 상상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헌등사」속 디스토피아는 결국 현재의 일본사회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고찰함으로써 「헌등사」에 대한 해석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디스토피아의 도래

「헌등사」는 정부 혹은 특정 단체에 의한 언어 및 생활 통제, 물자 부족이나 쏠림, 신체 구속 등 디스토피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설정들로 가득하다. 이는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비롯해 디스토피아를 묘사한 작품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설정들이다.

주요 등장인물인 요시로(義郎)는 중손자 무메이(無名)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100세 넘는 노인이다. 무메이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은 혼자 먹지도 걷지도 서지도 못할 만큼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건강과 젊음이란 단어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수식어가 아닌

8) 東京新聞「文芸時評」2014年 7月 29日

9) 木村朗子, 위의 논문

노인을 묘사하는 수식어로 기능한다. 노인들은 건강한 몸,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아이들을 보살핀다. 일본은 쇠국 상태로 외국과의 교류는 일체 없으며,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요시로는 원래 소설가였으나 그는 자신이 쓴 작품에 외국 지명이 많이 등장하여 도저히 출판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결국 작품을 폐기하고 만다. 오키나와(沖縄),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등지는 혼슈(本州)와 달리 물자가 풍부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더 이상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주 까다롭게 조건부로 이주민을 받아들이기에 아무나 이주할 수는 없다. 요시로의 딸과 사위는 오키나와의 과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가끔씩 전해지는 그림엽서 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메이의 어머니는 무메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며, 요시로의 손자, 무메이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 상태를 보이며 방랑을 일삼더니 결국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요시로의 아내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어느 시설에서 돌보며 은밀히 민간 극비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 외국에 사자(使者)로 내보내는 일이다. 결국 무메이가 사자, 즉 헌등사로서 선발되어 외국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된다.

「헌등사」에서 일본사회가 디스토피아화 한 이유는 명백히 원전사고라 할 수 있는데, 「헌등사」의 전작(前作)인 「불사의 섬」 「피안」과의 연관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작품 곳곳의 암시를 통해 해당 사회가 원전사고 이후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자네는 우유를 좋아하나?”

진지한 목소리로 의사가 묻자 무메이(無名)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령이를 더 좋아해요.”

요시로는 우유와 지령이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전혀 떠오르지 않아 내심 당황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치과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송아지가 아니라 병아리로군. 송아지는 엄마소의 젖을 먹고 자라지만, 닭의 새끼는 엄마닭이 물어다주는 지령이를 먹고 자라지. 그렇지만 지령이는 흙 속에서 사니까 흙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령이의 오염도도 높을 거야. 최근에는 닭이 지령이를 거의 먹지 않는 것도 그래서야. 그러니까 지령이가 남아돌아서 잡기 쉽지. 비 온 후 같은 때는 지령이가 도로에 잔뜩 나와 꿈꿨대며 돌아다닐 때도 있어. 하지만 자네는 남아도는 지령이 같은 걸 먹어선 안돼. 하늘을 나는 날벌레를 잡아먹도록 하게.”¹⁰⁾

위의 인용문은 치과를 찾아간 요시로와 무메이가 의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치과의사는 토양의 오염도를 언급하며 오염된 토양에서 비롯된 것은 위험하므로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10) 多和田葉子(2014)『獻燈使』講談社, pp.29-30

좋은 것이라 경고한다. 원전사고 이후 공기, 토양, 해수 등 모든 자연환경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게 된 가운데,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것이 다름 아닌 토양 오염이었다. 공기도 물도 순환이 이뤄지기에 축정이 용의치 않고 혹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순환을 거듭하며 그 농도가 떨어져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토양의 경우 정체되어 있고 오염이 축적되며 그 오염이 땅 속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후쿠시마, 도쿄 등지를 찾아가 방사능계측장치(가이거 카운터)로 토양의 방사능량을 측정 하곤 하는 다큐멘터리 장면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게 되는 것 또한 원전사고로 인한 토양오염의 폐해를 쉽게 짐작하게 해준다.

요시로는 자신이 손자에게 가르친 것들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도쿄에 노른자위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장차 그 가치가 하락한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부동산만큼 믿을 수 있는 것도 없지’라고 손자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노른자위 땅을 포함해 도쿄 23구(区) 전체가 ‘장기간 거주하면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도 집도 현금으로 환산 가능한 종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개별로 측정한 경우에는 마시는 물도 바람도 햇빛도 식재료도 기준을 웃도는 위험치가 산출되는 일은 없으나, 장기간 이 환경에 노출되면 복합적으로 악영향이 드러날 확률이 높은 토지라는 의미인 것 같다. 측량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사람은 종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¹¹⁾

위의 인용문은 일본의 토양 중에서도 도쿄와 그 인근의 땅들이 오염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오염으로 인해 본래 도쿄의 대지들이 갖고 있던 가치마저 완전히 상실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매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으며, 도쿄 인근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일마저 용의치 않다. 요시로는 오렌지 등의 과일이나 무메이에게 먹일만한 것들을 비싼 값에 겨우 한 두 개 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으며 과일을 비롯한 갖가지 작물들은 모두 오키나와나 홋카이도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이러한 설정은 현재 일본사회의 도쿄, 도쿄 이외 지방의 모습과 극명히 대비된다.

현대 일본 사회의 도쿄는 수도, 중심지, 모든 물자들이 모여드는 풍요의 공간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다카하시 데즈야는 원전사고 발생 이후, 도쿄와 수도권 인근 지역들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송출되는 전력의 수혜를 입어온 사실 및 미군부대 수용 지역으로서 오키나와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했는가를 지적한 바 있다.¹²⁾ 수도권과 지방의 이러한 불균형을 역전시켜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도쿄, 풍요로운 지방(오키

11)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pp.51-52

12) 高橋哲哉(2012)『犠牲のシステム福島・沖縄』集英社親書, pp.19-21

나와, 홋카이도, 도호쿠)이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간 도쿄 및 도쿄 인근 지역의 풍요가 다른 지역의 희생을 동력으로 한 ‘특혜’였음을 상기시킨다.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의 지역이 어쩌서 풍요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찌 되었건 그곳에서의 삶은 도쿄 인근 주민들의 삶보다 낮고, 원전사고 이후의 디스토피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등사」속 디스토피아는 균등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균등은 지역 뿐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살아가는 신체 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가게에는 종업원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요시로처럼 백세를 넘긴 이였다. 작은 몸집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다람쥐처럼 재빠르다. 요시로가 그 움직임을 눈으로 좇고 있자니 빵가게 주인이 요시로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속삭였다.

“숙부예요.”

(중략)

젊은 노인인 빵가게 주인은 ‘젊다’라든가 ‘중년의’라는 형용사가 붙지 않는 진짜 ‘노인’ 요시로로 얼굴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말했다.

“실은 숙부가 저보다 혈압이 낮아요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손님께서도 혈압이 낮으실 것 같네요. 저렇게 일하고 있는 숙부를 보고 있으면 60대의 젊은이가 정년퇴직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니까요.”¹³⁾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등사」에는 병약한 아이, 건강하고 젊은 노인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에서 묘사하고 있듯 ‘젊은 노인’이라는 신체 표현 역시 등장하고 있는데 젊은 노인이란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하는 60대에서 80대 정도의 노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목할 것은 그런 젊은 노인들보다도 백세를 훌쩍 넘긴 요시로나 빵가게 주인의 숙부 쪽이 더 건강한 신체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백세를 넘긴 노인들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노동력을 보유한 세대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무메이와 같은 10세 전후의 아이들은 가장 취약한 신체로 묘사된다. 무메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으며 심지어 음식물을 삼키는 것마저 어려움을 겪어야 할 정도의 약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죽지 않는 신체로 변모한 것과 달리 노인들의 증손자 세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반드시 어른의 보호

13) 多和田葉子(2014)『獻灯使』講談社, pp.18-19

를 필요로 하는 신체로 변하고 말았다.

노인이 이전 세대를,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노인은 죽지 않고 아이들만 스러져가는 세상이란 희망 없는 디스토피아가 분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제껏 살펴본 「헌등사」속 디스토피아적 상황들이 그 안에 다른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길항하는 디스토피아

무메이의 신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없이 병약하고 취약하다. 또한 무메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동급생들, 무메이와 같은 또래의 옆집 소녀 등 어린 아이들의 신체는 반복해서 나약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이들의 신체는 이제껏 없었던, 그렇기에 이제껏 품을 수 없었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신체로서도 묘사된다.

목소리를 넘과 동시에 풍선처럼 흔들리던 무메이의 목이 척추 연장선상에 딱 안정되었고 눈언저리에는 달콤시큼한 장난기가 깃들었다. 요시로는 아름다운 증손자의 얼굴이 순간 지장보살의 얼굴로 보인 것에 동요하며 ‘아직 잠옷 차림이냐. 얼른 옷을 갈아입거라’하고 일부러 엄한 목소리를 내며 서랍장 문을 열었다.¹⁴⁾

무메이에게는 ‘괴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와닿지 않는 듯, 기침이 나오면 기침을 하고 음식이 식도를 역류해 올라오면 토할 뿐이었다. 물론 아픔은 있지만, 그것은 요시로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푸념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아픔이었다. 그것이 무메이 세대가 선사받은 보물인지도 모른다. 무메이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을 알지 못한다.¹⁵⁾

무메이의 신체는 약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무메이를 바라보는 요시로의 시선을 통해 무메이의 모습과 정신이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메이는 마치 보살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의 움직임은 허우적대는 걸음걸이마저 하나의 춤을 보는 것처럼 특별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무메이가 요시로의 입장에서는 아픔이자 연민으로 느껴야 마땅할 것들에 관해 초연함을 보이는 것 또한 특기할 만 하다.

14) 多和田葉子(2014)『獻燈使』講談社, p.12

15) 多和田葉子(2014)『獻燈使』講談社, pp.44-45

오히려 무메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동정, 연민, 안타까움 등을 느끼는 요시로로 모습을 낮설게 바라본다. 무메이에게는 일부러 딱딱한 전병을 만들어 씹어 먹고, 새의 내장이나 알 뺨 물고기를 꼬치에 꽂아 불에 구워 먹었다고 하는 요시로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낮설고 요원하다. 또한 무메이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든가 특정 대상이 필요하다든가 소유하고 싶다든가 하는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

제대로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걸을 수 없기에 의복, 음식, 기구 등 그 어떤 것도 무메이에게는 무의미하다. 무메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은 동물도감, 문어, 코끼리, 세계지도 등과 같이 자연적인 것, 지구(地球) 환경과 관련된 것들뿐이다. 무메이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나 세계지도를 펼치며 일본 바깥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극락(極樂)’이라 외치며 극도의 기쁨을 표현한다. 무메이의 모든 욕망은 신체가 아닌 무메이의 상상력과 결부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무메이와 요시로를 대비는 결국 무메이가 ‘소비’라는 행위 혹은 감각이 결여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맛없는 음식을 준비해 먹인 뒤 미안해하는 요시로에게 무메이가 맛같은 건 딱히 상관없다고 말하자 요시로는 맛의 차이, 맛의 등급을 나누는 행위의 천박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생존이 아닌 기호(嗜好)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소비함은 물론 그 소비재들에 가치와 등급을 매겨 끝없이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무메이 세대의 아이들은 애초에 그러한 욕망이 결여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 신체의 결여가 동반되고 있다. 결여가 충족을 담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무메이의 존재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利己)가 문명의 이기(利器)를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결국 인간사회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설정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모태와도 같다. 「헌등사」 역시 원자력 발전소라는 문명의 이기로 인해 지금까지 향유해왔던 문명이 소실되어버리고 만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다만 여타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주로 고도 발달한 문명의 폐해로 인간들이 통제 당하고 고통 받는 상황을 그린다든지 문명의 소실로 인해 야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비참한 인간 군상을 묘사한 데 반해, 「헌등사」에서는 문명의 이기들이 소실됨으로 오히려 새 인류, 새 시대의 가능성이 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도쿄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예전에는 전기 플러그가 붙은 코드라는 꼬리 달린 제품을 먼저 떠올렸었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마을에 전기가 흘러 흔히 이르는 ‘찌르르병’으로 인해 손발이 저리고 신경을 다쳐 밤에 잠잘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무렵부터 전기 제품이 백안시되기 시작했다. 불면증인 사람들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산속의 캠핑 마을에서는

잠을 폭 잘 수 있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중략) 도쿄도에서는 전기제품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눈에 띄는 가설주택의 생활이 전국 라이프 스타일의 첨단을 달리는 모범이 되어갔다.¹⁶⁾

먹을 것을 비롯한 물자가 부족한 것은 물론, 세탁기도 냉장고도 청소기도 그밖에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그려지고 있지만, 작중 어디에서도 그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전기제품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것. 「헌등사」에서는 이처럼 그간 당연한 것처럼 사용해왔던 것들이 실은 삶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물질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설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디스토피아들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디스토피아의 전형적인 표상들과 노선을 달리하는 이러한 설정은 비단 전기제품 등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헌등사」에서는 언어 사용에 관한 묘사를 통해 작품 속 시점이 현재의 일본사회보다 더 발달된 사회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미안합니다(すみません)은 사과할 때 쓰는 말이야. 옛날에는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일도 많았지만, 너희들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사과해서는 안돼.”

“하지만 폐(迷惑)를 끼쳤는데요.”

“폐는 죽은 말이야. 잘 기억해줬으면 해. 옛날에 문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구분이 있었어. 너희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이어받으면 안돼.”¹⁷⁾
(괄호 안은 필자)

위의 인용문은 무메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언어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현재 일본어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해당하는 すみません, 迷惑의 쓰임을 정정하는 한편, 옛날 즉 현재의 일본사회를 작품 속 시점에 비해 문명이 덜 발달한 사회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염된 땅,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물자의 부족 등 전형적인 디스토피아적 상황들이 잔뜩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등사」속 일본사회를 디스토피아라 명명하는 데 어쩔 수 없이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위와 같은 작품 속 묘사들이 과연 어떤 사회가 디스토피아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며 작품 안팎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pp.62-63

17)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pp.137-138

4.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과 미래

다와다의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의 귀착점은 결국 현재의 일본사회다. 다만 「헌등사」속 디스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도, 암울한 미래가 도래할 것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도 아닌 ‘비판적 디스토피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디스토피아는’ 말 그대로 디스토피아 세계를 재현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고를 그 목적으로 하기에 근본적으로는 유토피아를 소망한다.”¹⁸⁾

다와다가 3.11 이후 원전사고를 문학적 테마로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와 동시에 다와다는 본래 ‘애국심’ 같은 종류의 것들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3.11 이후 일본에 대해 ‘책임감’ 비슷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헌등사」역시 다와다의 그러한 현실 인식 아래 집필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헌등사」가 현재 일본사회를 향한 조언, 경고, 비판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작품이라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떠올릴 수 있을 듯 떠올릴 수 없는 예전의 큰 잘못이 마음을 안쪽에서부터 쥐어뜯는다. 그 잘못 탓에 자신들은 감옥에 갇혀있다. (중략) 손자는 들판에서 피크닉을 하고 싶다고 늘 말했었어. 그런 사소한 꿈조차 들어줄 수 없는 건 누구 탓인가, 무엇 탓인가, 들판들은 오염되어 있는데. 어쩔 생각인가. 재산, 신분에는 잡초 한 줄기 정도의 가치조차 없다. 들어, 들어, 들어, 귀이개로 귀지 같은 변명을 파내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란 말이야.¹⁹⁾

무메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 요시로는 혼잣말과도 같은 분노를 쏟아낸다. 요시로가 말하는 예전의 큰 잘못이란, 가장 명백하게는 원전을 재가동하고만 세대의 과오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시로 자신이 ‘떠올릴 수 있을 듯 떠올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잘못이란, 한두 가지의 확실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일본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시로의 “들어, 들어, 들어”라는 외침은 결국 현재의 일본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향한 절규이며, 작가인 다와다 자신의 절규와도 중첩된다.

이와 더불어 다와다가 상당히 가변적인 디스토피아를 창조해냈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18) 전소영(2017.6) 「디스토피아 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충동: 조지 오웰의 『1984』와 마가렛 앳우드 『대리모 시녀이야기』」 『동서비교문학저널』 40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19) 多和田葉子(2014) 『獻灯使』 講談社, pp.155-156

「현등사」속 디스토피아는 일본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쇠국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환경들이 마치 변덕을 부리듯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로 그려지고 있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 미련이 사라진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아이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가을 날씨보다도 남자의 마음보다도 변덕스럽게 변해간다. ‘일찍 일어나기 건강법’이라는 기사가 실렸구나 싶으면 며칠 후에는 ‘늦잠 자는 아이는 키가 자란다’라는 커다란 활자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²⁰⁾

예전의 요시로였다면 오늘은 춥다든가 따뜻하다든가 비가 올 것 같다든가 하는 등 즉각적으로 날씨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찾았겠으나, 언제부턴가 날씨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졌다. 추위와 더위가 섞여 건조한 습기가 되어 피부를 건드렸다. (중략) 추위와 더위 뿐 아니라 어두움과 밝음의 대립 관계도 애매해져 있었다. 어두운 날이라 여겨져도 회색 하늘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으면 하늘이 전구처럼 안쪽으로부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 이윽고 눈부심에 눈을 돌리게 된다.²¹⁾

이렇듯 정보들은 물론 기후마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무력해지는 것이 다름 아닌 ‘일본어’다. 통제된 상황 아래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일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 더구나 통제된 일본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현등사」속 언어의 무질서함에 관해 “쇠국정책 등을 통해서 기존의 언어적 질서가 파괴된 세계 속에서도 다중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활동을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²⁾고 해석한 견해도 있다. 물론 작중에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소지를 가진 묘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어가 아닌 언어 일반에 대한 해석임을 전제했을 때는 위와 같은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등사」속 디스토피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본어, 그것도 통제된 일본어다. 다른 국가들이 언어를 수출하여 부유해질 수 있었던 데 반해 일본은 일본어를 수출할 수 없었다고 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러한 설정은 통제 아래 있는 언어, 급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언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한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실제로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어의 위기는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p.42

21)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pp.121-122

22) 남상욱, 위의 논문, p.213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고농도 방사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염수’라고만 한다. 여기에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의 위기가 있다. 현실을 인식하는 일을 겹겹으로 저지하는 가림막이 내재된 언어의 무리가, 시시각각으로 3.11을 망각시키고자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²³⁾

고모리 요이치는 정부 혹은 매스미디어의 통제 아래 무력하게 가림막 아래로 침잠해버린 일본어의 위기를 위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헌등사」는 현재 일본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들이 과연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일본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이 말의 형태로 환원되는 과정에 장애는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일본사회를 뒤덮고 있는 말의 무리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것을 권한다.

「헌등사」가 발표된 것이 2014년, 다와다는 그 전에 이미 「불사의 섬」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일본사회를 그려냈다. 「헌등사」는 말하자면 「불사의 섬」의 후속작과도 같은 작품이다. 두 작품은 아이들의 몸이 온전치 못한 데 비해 노인들은 건강한 불사의 몸이 되어 아이들을 돌봐야만 한다는 설정 역시 동일하다. 「불사의 섬」은 미래도 희망도 없이 굳게 닫혀버린 디스토피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설정상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등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불사의 섬」에는 무메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메이는 디스토피아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열쇠로서, 그의 증조할머니는 무메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리카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해 사자로서 외국에 보내는 극비 민간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최근 심사위원 주요 멤버로 선출되었다. 시설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사자로서 적합한 아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뇌 회전이 빨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는 아이는 실격. 책임감이 강해도 언어능력이 우수하지 않으면 실격. 입담이 좋아도 자신의 말에 도취되는 아이는 실격. 다른 아이의 아픔을 자신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이라도 바로 감상적이 되는 아이는 실격. 의지가 강해도 금세 아랫사람이나 당파를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는 실격.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아이는 실격.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실격. 기성 가치관을 전복시킬 용기와 재능이 없는 아이도 실격. 모든 일에 반항적인 아이는 실격. 기회주의자도 실격. 기분 변화가 심한 아이는 실격. 이렇게 보면 사자로서 적합한 아이란 건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기도 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완벽한 책임자가 있다.²⁴⁾

23) 小森陽一(2014)『死者の声、生者の言葉』新日本出版社, pp.8-9

24) 多和田葉子(2014)『献灯使』講談社, p.101

무메이의 증조할머니 마리카가 말하는 완벽한 적임자란 무메이를 가리킨다. 무메이는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인물로서 마리카는 그를 헌등사에 적합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헌등사의 조건들은 신체적, 물질적 항목들과 무관한 것들이다. 오직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인격의 소유자만이 헌등사로서의 자격을 만족시킨다.

그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메이는 기존 요시로 세대, 즉 현재의 일본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극락과 같은 기쁨을 느끼는 존재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다와다는 결국 미래가 ‘상상하는 인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육체적 욕망이나 선입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조차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이야말로 폐쇄이 만연한 현재의 암울한 일본사회를 위한 ‘헌등’이 될 수 있음을 말이다.

5. 나오며

지난 2015년 8월 11일,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사쓰마센다이(薩摩川内)시의 원전 1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한 이래 원전 재가동에 관한 논의는 자민당 정권의 적극적인 추진 아래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원전사고 재발 이후의 일본사회를 그린 다와다의 소설들은 모두 원전 재가동이 이뤄지기 전에 집필된 것들이다. 결국 원전이 재가동되고 말았다는 부분까지는 다와다의 소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셈이다.

원전사고 이후 병약한 아이들이 건강한 노인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 언어가 통제당하고 채국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사회. 「헌등사」는 디스토피아라 부르기엔 충분한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무메이를 비롯한 아이들 세대는 정작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무메이에게는 그의 약한 신체도 부족한 물품도 문제될 것이 없다. 무메이가 욕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상상의 여지’다. 그런 무메이에게 있어 디스토피아란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사회가 묘사되고 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옛날 사람 요시로와, 기존의 가치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무메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같은 것일 수 없다. 결국은 서로 다른 디스토피아를 상징하는 이 두 개의 축이 작품 내에서 길항을 만드는 한편, 작품 바깥에서는 현재의 일본사회를 향해 조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012년 3월 22일 일본의 한 뉴스 포털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북한인가!」 교정자에 의한 판매정지에 작가가 격노(「北朝鮮かよ!」校正者による販売停止に作家が激怒)²⁵⁾ 미스터리 작가인 도카지 게이타(戸梶 圭太)가 집필중인 소설이 교정자에 의해 판매중지 처분 받았으며, 이를 작가 자신이 트위터에 밝힘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도카지 게이타가 집필중이었던 소설 『미궁경시정2·후쿠시마 공포의 비경(迷宮警視正2・福島恐怖の秘境)』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근처 지대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전국의 지명수배자나 다중채무자 등이 모여드는 공포와 폭력의 땅으로 변해간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교정자는 ‘이런 것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된다.(こんなものを世に出してはいかん)’는 판단 아래 판매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는 의식, 도카지 게이타의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황들은 3.11 이후 일본사회에 보이지 않는 금기가 존재해왔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제로 원전사고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해 예정됐던 ‘원폭전(原爆展)’마저 취소되곤 했던 상황²⁶⁾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는 3.11 이후 ‘자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 아래 이뤄져왔음을 짐작케 한다.

“현대에는 여러 금기가 있다. 글쓰는 이가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 실은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글로 써내기 어려운 범위가 존재한다²⁷⁾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원전이나 방사능에 대한 언급도 그러한 금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그것들은 3.11 이후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아래 원전사고를 정면에서 다루고자 한 다와다의 문학적 상상력이 전개되었다. 다와다의 글들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이유와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 본문에서 언급된 「불사의 섬」과 「헌등사」 외에도 단편집 『헌등사』에는 「피안」을 비롯해 다와다의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녹아든 다른 작품들 역시 수록되어 있다.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성 아래 「헌등사」의 해석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해보는 일을 추후의 과제로 하고 싶다.

25)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6391782/> (검색일: 2019년 12월 30일)

26) 朝日新聞「原発事故で「原爆展」中止に 目黒区美術館「被災者の心情に配慮」」2011년09월15일

27) 작가 노사가 아키유키(野坂昭如)는 다와라 소이치로(田原総一郎)의 『원자력전쟁(原子力戦争)』이 1981년 문고판으로 출간(田原総一郎「原子力戦争」(講談社, 1981))될 당시 게재한 해설의 일부를 인용. 노사가 아키유키는 해설란을 통해 다와라 소이치로의 작품이 현대의 금기에 도전하는 ‘예언서’와 같은 작품이라 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원전사고에 관한 언급 혹은 원전의 위험에 관한 경고 등이 오래전부터 일본사회의 금기 중 하나로 작용해 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남상욱(2018.6)「디스토피아의 언어세계 -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현등사」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51집,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 전소영(2017.6)「디스토피아 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충동: 조지 오웰의 『1984』와 마가렛 앳우드의 『대리모 시녀이야기』」『동서비교문학저널』40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 최가형(2018.11)「재해와 경계너머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작품세계 -」『일본어문학』제83집, 일본어문학회
- 木村朗子(2019)「放射能災の想像力: 多和田葉子「献灯使」のかたること」『2018年度フェリス女学院大学学内共同研究: ポピュリズムとアート』フェリス女学院大学
- 范淑文(2019.3)「作家に語られた震災—多和田葉子を中心に—」『比較日本学教育研究部門研究年報』15巻, お茶の水女子大学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研究所
- 谷口幸代(2015.3)「多和田葉子の文学における境界: 「夕陽の昇るとき~STILL FUKUSHIMA~」を中心に」『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11巻, お茶の水女子大学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研究所
- 柳生正名(2019)「目の陰から見ること: 日本語の多言語性をめぐって: 多和田葉子小論」『慶應義塾大学日吉紀要ドイツ語学・文学』58巻, 慶應義塾大学日吉紀要刊行委員会
- 多和田葉子(2014)「献灯使」『献灯使』講談社, pp.1-268
- 東京新聞「文芸時評」2014年 7月 29日
- フレドリック・ジェイムソン著 秦邦生訳(2011)『未来の考古学 I—ユートピアという名の欲望』作品社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5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要旨>

재난 이후의 문학적 상상력과 길항하는 디스토피아

– 다와다 요코의 「헌등사」를 중심으로 –

최가형

다와다의 작품은 작가의 이력을 배경 삼아 주로 경계, 언어, 정체성, 디아스포라 등의 테마와 결부해 논의되어 왔다. 그런 다와다의 작품 세계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하 3.11), 연이어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점으로 전환을 맞게 된다.

2014년 발표된 「헌등사」는 원전사고 이후 완전한 채국 상태가 되어버린 일본, 신체적으로 병약하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며 영생에 가까운 수명과 건강 상태를 유지해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미래사회를 그린다든 것은 현대사회를 미래에 투영시켜보는 독해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다와다가 다른 아난 디스토피아를 묘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그가 현대 일본사회의 경향 및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원전사고 이후 「헌등사」라는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다와다의 문학적 상상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헌등사」속 디스토피아는 결국 현재의 일본사회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고찰함으로써 「헌등사」에 대한 해석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Post-disaster literary imagination and auspicious dystopia

– Focusing on Tawada Yoko's “Kentoshi” –

Choi, Ga-Hyung

Tawada Yoko's works have been discussed mainly in conjunction with themes such as boundaries, language, identity and diaspora, taking the author's career as a background. The world of Tawada's work will be transformed into a new era of the March 11, 2011, disaster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Published in 2014, “Honryungsa” tells the story of Japan, which has been in a state of complete lockdown since the nuclear accident, children who are physically ill and cannot live without someone's care, and elderly people who maintain a near eternal life and health.

Drawing a future society, whether Utopia or Dystopia, ha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reading behavior that projects modern society into the future. The fact that Dawa chose to portray none other than dystopia shows that he is staring squarely at the trends and crises of modern Japanese society.

In the original book, we intend to expand the extramarital 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Honryungsa” by examining what the literary imagination of Tawada, which depicts the “Honryungsa” after the nuclear accident, ultimately means to say, and how it is in line with the current Japanese society, while reflecting on its implications.